

한국 전통건축의 색채와 조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r and Plasticity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박호철* / Park, Hyo-Chu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olor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ffects its plasticity. The researcher took four distant and near photographs of each representative building of each use, measured the colors, and analyzed these using the color perception theor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When perceiving the entire plasticity of a building, the color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reduces the heavy feeling that may be brought about by the roof's weight, but stresses the solidity of the pillars. This color perception effect displays the visual stability and balanced plastic beauty of the building's facade.
2. When looking at a building up close, the building's color emphasizes the solidity of the major materials used to construct it through a contrast effect, and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ilding, such as the dignity of its seal engraving, its magnificence, its simplicity, etc.
3. The color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a major factor that expresses plastic language as it displays topographical level differences and intercepts or opens view through the artificial division of space, etc., according to the building's use.

키워드 : 한국전통 건축, 한국전통 색채, 조형, 색채지각, 색채대비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한국 전통건축은 배흘림, 안 쏘림, 귀솟음 등과 같은 시각적 착시효과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조형미에 관심을 표현해왔다. 반면에 전통건축의 조형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단청은 대부분 고명도 고채도 이므로, 중명도 중채도의 자연환경 색채와는 서로 명도·채도대비 되므로 색채 지각이론으로만 보면, 채색부위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져서 건축물 조형에 악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건축은 자연에 순응, 순화 또는 자연의 일부로서 귀속된다”²⁾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 전통건축에 대해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³⁾는 “승고한 기품과 아름다움은 세계 미술계의 으뜸을 차지한다”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 전통 예술의 특색을 형태, 색채, 선으로 설명하였는데, “형태 면으로는 안정, 침착, 장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색채 면으로는 인간 내면의 희열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이 있다. 선은 끊어질 듯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유구한 아름다움이 있다”⁵⁾고 한국 전통예술의 특색을 설명하였다. 전통건축은 색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잘 조화되면서, 형태와 색채, 선으로 이루어지는 조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의문이 간다. 그러므로 전통건축의 색채와 조형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조형미는 지각하는 특정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나름의 조형미를 지각하게 된다. 그러면 전통건축의 외부 형태와 공포계의 복잡한 채색은 보는 위치에 따라 어떻게 지각되어서 건축물 조형에 어떤

1)김영기는 ‘형태가 색채를 능가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색채에 가려서 그 빛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4, p.275.)

2)임석재,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2000, p.261.

3)柳宗悅(1889~1961) ; 조선의 미술에 심취하여 ‘조선 민족 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조선예술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조선과 그 예술』, 『공예의 길』, 『민예란 무엇인가』, 『공예의 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선의 공예』등 조선과 관련된 다수의 저서가 있다.

4)柳宗悅, 이길진 옮김, 조선과 그 예술, 신구, 1998, p.326.

5)앞의 책, pp.333~334.

* 정회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공학박사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둘째, 전통건축은 용도에 따라 배치기법과 입지유형이 차이난다. 그리고 용도별로 색채도 차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물 조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통 건축 중, 채색한 건축물인 궁궐, 사찰, 유교건축물들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11일부터 2002년 5월 18일 사이에 답사하고, 용도별 대표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정하여 색채 지각이론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연구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지방 사례도 포함하였다. 본문에서는 <표 1>의 사례대상 가운데,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각 용도의 정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재 지정종목은 보존 가치에 의해 판단된 것이므로, 여러 차례 개철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룬다 할지라도 지정종목이 높은 것들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표 1> 사례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
궁궐 건축	창덕궁 인정전, 창덕궁 선정전,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명정전, 창경궁 통명전
사찰 건축	전등사 대웅보전, 전등사 약사전, 정수사 대웅보전, 청운사 대웅전, 신록사 극락보전, 신록사 조사당, 석남사 대웅전, 석남사 영선전, 봉은사 대웅전, 봉은사 판전, 낙산사 원통보전, 신흥사 극락보전, 칠장사 대웅전
유교 건축	성균관 대성전, 성균관 명륜당, 종묘 대성전, 강릉문묘 대성전, 도산서원 전교당, 강화향교 대성전, 노강서원 대성전, 파주향교 대성전, 적성향교 대성전, 예안향교 대성전, 교하향교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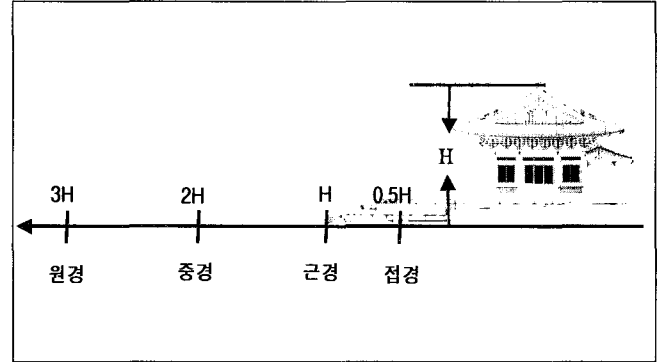
<표 2> 중점 분석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	연대	소재지	문화재 지정종목
궁궐 건축	창덕궁 인정전	1804	서울 종로구 와룡동	국보 제225호
사찰 건축	전등사 대웅보전	1621	인천 강화군 길상면	보물 제178호
	전등사 약사전	1621	상동	보물 제179호
유교 건축	성균관 대성전	1869	서울 종로구 명륜동	보물 제141호

건축물 색채는 동일 건축물일지라도 태양의 고도가 가시도(可視度; visibility)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지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답사는 사례 대상들 간의 거리가 멀어서 이동하는 시간 동안 날씨와 태양고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으로 한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외기 조건은 10,000 lux이 상인 청명한 날,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3시간 전에 답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때 촬영된 자료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건축물의 색채는 다가가는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특히 궁궐, 사찰, 유교 건축의 공포계는 좁은 채색면이 많아서 더욱더 그 차이가 크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에 따라 지각되는 장면들을 분석할 수 없는바,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지

각지점을 <그림 1>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⁶⁾ 이때 각 지점에서는 사람이 보행할 때의 눈높이인 약 1.6M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해서 시각측색법으로 측색하였다.⁷⁾



<그림 1> 색채 지각 지점의 분류

2. 색채지각 이론

분석의 기준은 색채의 명시성과 유목성, 진출과 후퇴, 팽창과 수축, 색상·명도·채도대비, 보색대비, 면적대비, 연변대비, 색의 동화, 색의 중량감, 색의 강약감 등의 색채지각 이론이다.

(1) 명시·유목성

색들 가운데는 잘 보이는 색과 잘 보이지 않는 색이 있다. 이것은 색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색과의 관계, 특히 명도 차에 의해 나타난다. 이 때 잘 보이는 정도에 따라 명시성이 높다 또는 낮다고 한다. 또한, 색 스스로 눈에 띄는 색과 그렇지 않은 색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유목성이 높거나 낮다고 한다.

(2) 진출·후퇴, 팽창·수축

동일한 거리에 있는 벽면이라도 그 벽의 색채에 따라 가까이 보이는 벽이 있고, 멀리 보이는 벽이 있다. 고명도·고채도·난색계의 색은 진출·팽창하는 성향이 있으며, 저명도·저채도·한색계의 색은 후퇴·수축하는 성향이 있다. 배경이 저명도이고 그림이 고명도이면, 그리고 배경이 저채도이고 그림이 고채도이면 각각 그림이 진출·팽창하는 성향이 있다.

6)일본 컬러 플래닝 센터(CPC)에서는 환경색채를 측색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누었다. 거리를 두고 랜드 스케이프 레벨에서 지각하는 색채의 상황을 원경색(遠景色), 가로에서 개개의 건축물을 인식하는 타운 스케이프 레벨에서 지각하는 색채의 상황을 중경색(中景色), 가로의 건축물에 에워싸인 스트리트 스케이프 레벨에서 지각하는 색채의 상황을 근경색(近景色), 건물재료의 재질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근접색(近接色)으로 구분해 측색하였다.(カラープランニングセンター, 장준호 역, 환경색채 디자인, 국제출판사, 1987, pp.32-33.)

7)전통건축의 복잡하고 다양한 색채를 모든 지각지점마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람이 지각하는 것과 같도록 디지털카메라(Sony DSC-F505V, digital zoom을 OFF로 설정)로 촬영하고, 동종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여 주요색채를 측정하였다. 색채의 측정은 시각측색법과 물리 측색법 중 시각측색법으로 측색하였다.

(3) 색상·명도·채도대비

색은 단독으로 지각되기보다는 대부분 인접한 다른 색과의 관계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실제보다 그 색차이가 강조되어 보이는 현상을 색채대비라고 한다. 명도대비는 명도가 다른 색들이 서로의 영향으로 밝은 색은 더욱 밝고,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지각되는 현상이다. 채도와 색상이 서로 다른 색들 간에도 대비현상이 일어난다.

(4) 보색대비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하는 보색관계의 두색이 나란히 있으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각각 채도가 더 높게 지각되는 현상이다.

(5) 면적대비

동일 색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색채는 밝고 선명하게 지각되어서 실제면적보다 넓게 지각되고, 좁은 면적은 실제보다 좁게 지각되는 현상이다.

(6) 연변대비

인접한 두 색은 서로의 경계 언저리가 먼 부분보다 더 강하게 지각되는 현상을 연변대비라고 한다.

(7) 색의 동화

두 개 이상의 색을 볼 때, 반드시 대비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색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어 인접한 색에 가깝게 지각되는데, 이 현상을 색채동화라고 한다. 이 현상은 배경색과 비슷하거나, 줄무늬와 같이 복잡한 무늬들로 구성될 때 일어난다.

(8) 색의 중량감

색에는 무겁게 지각되는 색과 가볍게 지각되는 색이 있다. 색상의 차이는 무게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명도의 영향이 크다. 저명도의 색은 무겁게, 고명도의 색은 가볍게 지각된다. 또한 난색계통은 가볍게, 한색계통은 무겁게 지각된다.

(9) 색의 강약감

색의 중량감은 명도와 관계가 있지만, 강약감은 채도와 관계가 있다. 대체로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주고,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을 준다.

3. 용도·지각위치별 색채와 조형의 관계분석

본 장에서는 각각 지각위치에서 지각되는 주요색들이 건축물 조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궁궐건축, 사찰건축, 유교건축들은 건축물의 색채도 차이가 있지만, 입지하는 지형 조건도 차이 나므로 이들 배경색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3.1. 궁궐건축

(1) 원경과 중경

<그림 2>는 원경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와 이 위치에서 지각되는 주요부위 색채이다.

하늘	2.5P5/10
수목	7.5GY4/3
양성마루	N9.0
기와	N4.75
공포(1)	10R3/2
공포(2)	5GY2/2
창호지	N9.0
창호	5GY3.5/1
실내음영	N3.25
기둥	2.5R4/4
바닥	5Y7.5/1

<그림 2> 궁궐의 원경과 주요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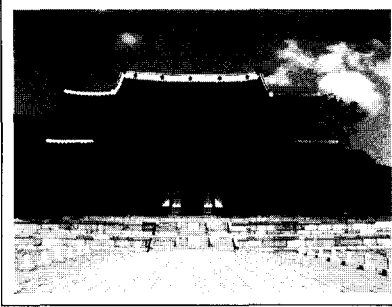
고명도·무채색(N=9.0)의 궁궐건축 양성마루⁸⁾는 배경색인 하늘과 채도 차이($\Delta C=10$), 명도 차이($\Delta V=4$)가 크며, 그리고 기와와도 명도 차이($\Delta V=4.25$)가 커서 더욱 밝은 흰색으로 지각된다. 이런 색채지각 특성으로 인해서 하늘과 지붕의 경계가 명확하며, 양성마루는 유목성과 명시성이 높다. 아울러 양성마루()는 기와의 골 방향()과 결합하여 시각을 상부로 끌어올려 위엄 장중한 조형이미지를 더한다.

무채색 기와는 공포와 채도($\Delta C=2$)·명도대비($\Delta V=1.75\sim 2.75$)되며, 구분된 지붕과 공포의 경계는 처마곡선()이 된다. 이 처마곡선은 양성마루와 함께 지붕의 형태()를 구분한다. 공포계와 명도·채도대비 되어서 구분된, 날아오를 듯한 형태의 지붕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색이라도, 면적이 크면 색채는 밝게 또는 선명하게 지각되는 면적대비 특성으로 인해서, 입면의 50%를 차지하는 궁궐건축의 넓은 지붕은 실제면적보다 밝고 넓게 지각된다. 즉, 원경에서 궁궐건축 지붕부는 전각의 위엄과 지붕무게를 시각적으로 경량화 하는 색채지각 효과가 있다.

육색(9.4R5.7/8.9), 장단(7.5R5/12.1), 주홍(7.1R4.3/7.9), 양록(5.1G6.4/9.1), 삼청(7.4PB4.6/9.7), 석황(3.5Y8/13.8) 등 색조가 강한 단청은 자연과 대비되는 색이다. 하지만, 이들 색들은 모두 처마 그늘에 가려진 공포부분에 채색되므로 저채도와 저명도로 지각된다. <그림 2>의 측색 결과처럼 공포계의 유채색은 저채도, 저명도이기 때문에 수목과 대비되지 않는다. 벽면부의 기둥은 수목과 색상대비되며, 창호와도 색상·채도대비 된다. 특히, 난색이므로 주목을 받는 색(명시성, 유목성이 높은 색)이며, 강한 색이다. 그리고 진출·팽창하는 색상이며, 인접된 인방과 동일색상이므로 한 색으로 동화되어서 더욱 굵게 보인다. 즉, 기둥은 색의 고유 지각특성과 주변 색들에 대비되어서, 강

8)양성마루는 지붕마루를 기와로 쌓아 축조한 다음, 그 표면에 석회반죽 또는 회사반죽을 발라서 마무리한 것이다. 이것은 강풍에 대비하여 붕괴를 방지하고 위엄 장중한 외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고 현실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결국 전각의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하늘	2.5PB6/10
양성마루	N9.25
기와	N4.25
실내음영	N3.25
공포(1)	10R4/6
(2)	5GY3/2
창호지	N9.0
창호	5GY4/1
기둥	10RP4/6
바닥	5Y8/1

<그림 3> 궁궐건축의 원경과 주요 색채

건축물의 색은 관찰시점의 태양 고도와 기상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지각지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 3>은 원경과 동일한 건축물을 같은 날 중경에서 촬영한 자료와 주요 부위 색채현황이다. 중경의 주요색채는 원경보다 명도($V=0.5\sim 1$)와 채도($C=2\sim 6$)가 높다. 양성마루는 원경에서보다 기와와 명도차이($\Delta V=5$)가 더 커서 더욱 밝은 흰색으로 지각된다. 그리고 처마곡선도 공포의 유채색과 기와의 무채색이 채도대비($\Delta C=2\sim 6$) 되어서 뚜렷이 지각된다.

<표 3> 궁궐건축 원경과 중경 색채지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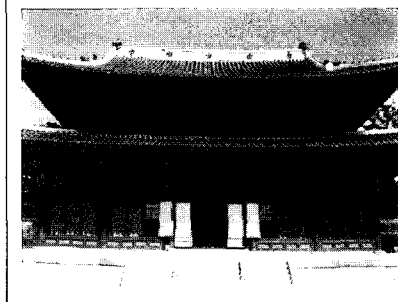
주요지각요소	색채지각이론의 근거	시 지각 특성	조형효과
양성마루	· 하늘과 명도·채도대비 · 지붕과 명도대비	· 하늘과 지붕의 경계구분 · 양성마루의 높은 유목성과 명시성	· 큰 지붕과 형태가 강조되어 위엄 장중한 이미지 효과 · 기와 골 방향과 양성마루형태가 결합되어 상승 이미지 효과
처마선	· 기와와 공포의 명도·채도대비	· 지붕과 공포를 명확히 구분 · 처마곡선 강조	· 지붕의 부양 이미지 효과를 통하여 시각적 경량화
지붕부	· 면적대비 · 색채의 중량감	· 색채가 밝고 선명하게 지각	· 위엄 장중한 지붕무게의 시각적 경량화
기둥	· 수목과 색상대비 · 창호와 색상·채도대비 · 난색의 팽창성 · 유목성과 명시성 · 인방과 색채동화	· 기둥이 강조되고 팽창하는 지각특성	· 굵고 검실하게 지각되어서 구조의 시각적 안정감

기둥도 주변 색과 색상·채도대비는 물론, 원경보다 채도가 높게 지각되므로 팽창성향과 강한 이미지를 더한다. 즉, 중경과 원경에서 지각되는 색채는 차이가 있지만, 양성마루, 처마선, 지붕면의 형태, 기둥 등의 색채들은 중경에서도 전각의 조형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원경과 중경에서 지각되는 궁궐건축의 색채는 색의 대비효과에 의해서 건축물 형태를 뚜렷이 구분한다. 특히, 양성마루와 처마선으로 구획된 부양하는 듯한 지붕의 형태는 지붕무게를 시각적으로 경량화한다. 또한 양성마루와 기와 골의 방향, 그리고 지붕의 면적대비 효과를 통하여 건축물의 위엄 장중함과 수직축부재의 견실함을 강조하는 색채지각 효과가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근경과 접경

<그림 4>는 중경과 동일한 건축물을 같은 날 근경에서 촬영한 자료와 주요 부위 색채현황이다. 원경이나 중경에서 넓게 지각되었던 회색 기와지붕은 상당히 줄거나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원경이나 중경에서는 지붕이 건축물 조형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근경에서는 벽면부와 공포계가 건축물 조형에 주로 영향을 준다. 또한 건축물 배경으로서 자연환경의 영향은 약화되어서 수목은 거의 지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중경에서 지각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도는 동일하나 채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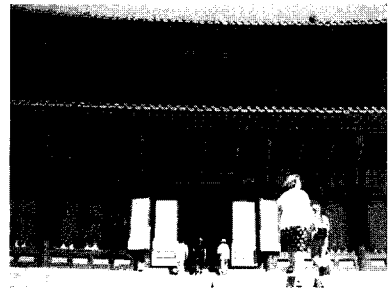
하늘	2.5PB6/8
양성마루	N9.25
기와	N5.5
공포(1)	7.5Y6/6
(2)	7.5GY4.5/2
(3)	10R4/6
실내음영	N3.0
창호지	N9.25
창호	10YR5/2
기둥	2.5R5/4

<그림 4> 궁궐건축의 근경과 주요 색채

양성마루, 막새기와, 부연부리, 초매기, 연목부리, 포벽, 평방, 창방, 광창, 인방 등의 수평방향 선과 앙서(부리, 벌치, 배), 기둥의 수직방향 선들이 강하게 지각된다. 양성마루는 하늘과 채도($\Delta C=8$)·명도($\Delta V=3.25$)차이, 기와와 명도차이($\Delta V=3.75$)가 커서 유목성과 명시도가 높다. 막새기와는 부연부리와 채도대비 되어서 처마선이 되고, 처마선과 나란한 초매기, 연목부리들은 인접색들과 삼속성중, 특히 색상대비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러나 이 곡선들은 원경이나 중경에서보다 완만하다.

평방은 포벽, 창방은 광창, 광창은 창방과 인방, 인방은 창호 등의 인접부재와 주로 색상대비에 의해서 서로의 경계를 구분한다. 평방과 창방의 좁고 복잡한 머리초의 휘와 빛도 인접색과 삼속성별 대비에 의해서 구분된다. 평방과 창방은 머리초와 계통이 색상대비되어 시각적으로 짧게 보이는데, 이 착시현상은 대표적인 수평 축부재의 길이를 조절하여 구조의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인방과 기둥은 동일 색이므로 색채동화에 의해서 하나의 두툽한 수직부재로 보이며, 인방과 창호재의 경계 언저리는 먼 부분보다 색상·명도·채도대비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기둥 윤곽이 뚜렷하다(연변대비). 더구나, 기둥과 인방(10RP4/4)의 RP계열 색은 강한 진출 색이기 때문에, 기둥과 인방구조가 한층 더 굵고 견실하게 지각된다. 또한, 공포계(10G4/4)의 G계열은 벽면부 RP계열 색상과 대비된다. G계열은 후퇴 색이므로 전각의 높이를 높이는 지각효과가 있어서 전각의 장엄함과 권위를 높인다.

	공포(1)	10G4/4
	(2)	5YR5/10
	(3)	5Y7/6
	(4)	5PB5/10
	(5)	10RP4/4
	(6)	10RP7/4
	실내음영	N2.75
창호	5Y9/3	
창호지	N9.25	
기둥	10RP4/4	

<그림 5> 궁궐건축의 점경과 주요 색채

<표 4> 궁궐건축 근경과 점경 색채지각 분석 (※는 근경만 한정)

주요지각요소	색채지각이론의 근거	시 지각 특성	조형효과
양성마루*	· 하늘과 채도·명도대비 · 기와와 명도대비	· 하늘과 경계구분 · 양성마루의 높은 명 시성과 유목성	· 상승적 시각이미지에 의해서 위엄장중 효과
처마선	· 기와와 부연부리의 채 도대비	· 지붕과 공포의 경계 구분	· 각 부재의 휘와 빛까 지도 명확히 지각되 어서 화려한 이미지 효과
초매기, 연목부리, 포벽, 광창, 인방	· 인접부재와 색상대비	· 인접부재와 경계구분	
평방·창방의 계풍	· 머리초와 색상대비	· 평방과 창방의 길이 가 짧게 지각	· 착시효과를 통하여 구조의 시각적 안정감
휘, 빛	· 인접 휘 또는 빛과 대비	· 휘와 빛의 경계 구분	· 전각의 화려함
기둥, 인방	· 인방은 기둥에 색채동화	· 두툼한 한 부재로 지각	· 강하고 견실한 수직 부재의 강조
	· 색채의 진출성	· 강하고 팽창하는 부재로 지각	
공포계의 주조색과 벽면부 주조색	· 주조색 간의 색상대비	· 공포계의 G계열 후 퇴색이 강조	· 전각의 높이를 높아 보이게 하는 효과

<그림 5>는 점경에서 촬영한 자료와 주요부위 색채현황이다. 이 지각지점은 가장 궁궐건축의 현재 색에 가까운 색들을 지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공포계의 각 부재는 물론, 부재의 휘와 휘의 빛까지도 구분되어서 화려한 색채를 지각할 수 있다. 처마선, 초매기, 연목부리 선들은 평방·창방과 수평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포부는 중층구조지만 하층부의 지붕이 보이질 않아서 상하 공포가 합쳐진 거대한 구조로 지각된다. 중층구조의 높은 공포는 전각의 위엄과 권위를 높인다. 또한 기둥의 팽창과 강한 속성의 색상, 그리고 수평축부재들이 짧게 느껴지는 착시효과는 구조의 견실함을 강조하는 색채지각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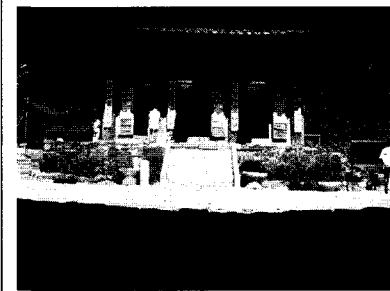
근경과 점경에서 지각되는 궁궐건축의 색채는 부재는 물론, 휘와 빛까지도 구분하고, 상층과 하층 공포가 합쳐진 구조로 지각되어서 전각의 권위를 높인다. 또한, 수평 축부재의 착시현상과 수직 축부재의 색채지각특성으로 인하여 구조의 견실함이 강조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2. 사찰건축

(1) 원경과 중경

산지가람배치(山地伽藍配置) 형식을 취하는 사찰건축은 경내 입구에서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들을 볼 수 없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루(樓)건물 등으로 구분된 여러 단계의 공간적 전이를 거친 후에 그 사찰의 핵심공간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경계에서도 본전은 레벨 차이나 인위적인 시각적 장애물들로 인해서 전체모습을 보기 어렵다.⁹⁾ 전등사 대웅전은 원경에서 전혀 볼 수 없으며, 중경에서도 루 마루 하부에 가려서 그 일부만 지각된다. <그림 6>은 중경에서 촬영한 자료와 주요 부위 색채현황이다.

	수목	5GY4/3
	공포(1)	10GY3/1
	(2)	2.5G4/3
	실내음영	N3.0
	기둥	7.5R6/4
	창호지/주연	N9.0
	마당	5Y9/1

<그림 6> 사찰건축의 중경과 주요색채

사찰건축은 일반적으로 기둥에 주련(柱聯, pillar tablet)¹⁰⁾을 거는데, 이 주련은 기둥의 머리초부터 주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주련의 색이 기둥의 색채지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¹¹⁾ 흰 바탕(N9.0)에 검은 색 글씨를 쓴 전등사 대웅전의 주련은 중경에서 기둥의 일부 색으로 지각된다. 주련은 기둥과 채도($\Delta C=4$)·명도($\Delta V=3$)차이가나서 구분되며, 명시도도 높다. 한편, 기둥의 석간주는 수목이나 공포계와 색상대비 되고, 난색이므로 굵고 강한 이미지가 부각된다.

사찰건축은 원경이나 중경에서 전각전체를 지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색채가 전각의 조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모호하다. 다만, 중경에서 지각되는 전각의 하부는 기둥의 견실함과 명시도를 높이는 색채지각효과가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사찰건축 중경 색채지각 분석


주요지각요소	색채지각이론의 근거	시 지각 특성	조형효과
기둥	· 수목, 공포계와 색상대비 · 주련과 명도·채도대비 · 색채의 진출성	· 수목이나 공포계와 구분 · 기둥의 팽창성	· 굵고 튼튼한 수직부 재 강조
주련	· 기둥과 채도·명도 대비	· 높은 명시도	· 기둥의 강조

(2) 근경과 점경


근경에서는 전각 전체 모습을 지각할 수 있다. <그림 7>은

9)석남사 대웅전과 봉은사 대웅전은 대지의 레벨 차이 때문에 전각 전체를 지각할 수 없다.
10)주련은 그림이나 글귀를 쓰거나 새겨서 기둥에 걸어 두는 물건이다.
11)전등사 대웅보전과 약사전, 석남사 대웅전과 영산전, 신록사 조사당 등은 흰 바탕(N9.0)에 검은 색이나 청색 글씨를 쓴 주련을 걸고 있으나, 청용사 대웅전, 봉은사 판전, 봉은사 대웅전, 낙산사 원통보전, 신홍사 극락보전, 칠장사 대웅전, 신록사 극락보전 등은 검정바탕(N2.5~3)에 흰 글씨를 쓴 주련을 걸어서 기둥 색채지각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루 마루를 지나 계단하부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와 주요 부위 색채현황이다.

	하늘	2.5PB5/8
	수목	5GY4/3
	기와	5Y7/1
	공포	5GY4/2
	실내음영	N3.0
	주련/창호지	N9.0
	기둥	2.5YR4/6
	마당	10Y9/2

<그림 7> 사찰건축의 근경과 주요색채

	공포(1)	2.5G4/2
	(2)	2.5G2.5/2
	(3)	5G7/8
	(4)	2.5YR3/3
	(5)	7.5PB5/8
	실내음영	N2.5
	창호지/주련	N8.5
	창호	2.5BG6/2
	기둥	2.5YR4/3

<그림 8> 사찰건축의 접경과 주요색채

지붕은 본래 넓지만, 전각과의 거리가 가깝고, 낮은 레벨에서 보기 때문에 좁게 보인다.¹²⁾ 좁게 지각된 지붕은 가볍게 보여서 중압감을 주지 않고, 전각 전체 입면의 안정감을 준다. 궁궐의 정전은 지붕에 양성마루를 조성하지만, 사찰건축은 용마루를 조성한다. 용마루는 배경인 수목과 명도·채도대비($\Delta C=2$, $\Delta V=2\sim3$)되어 경계가 구분되지만, 대비가 약해서 궁궐건축에 비해 유목성과 명시도가 낮다. 그러나 처마곡선은 막새기와와 공포계가 명도대비($\Delta V=4$)되어서 잘 드러난다. 더구나 지붕은 공포계와 수목이 색채동화되기 때문에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이 보이는데, 날아오를 듯한 형태의 지붕()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부연부리, 연목부리, 포벽, 평방·창방 등 수평방향 부재와 양서(부리, 벌치, 배), 기둥의 수직방향 부재들도 부각되는데, 이들은 인접색들과 삼속성 중 특히 색상대비에 의해서 구분된다.

기둥은 주련과 명도·채도대비($\Delta C=6$, $\Delta V=4$)되고, 인방, 수목과도 색상대비 되어서 그 경계를 구분한다. 또한 기둥은 금단청의 화려한 공포와 창방·인방과도 색상·채도 대비되어서 명시도가 높다.

<그림 8>은 접경에서 촬영한 자료와 주요부위 색채현황이다. 이 지각지점은 가장 사찰건축의 현재 색에 가까운 색들을 지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부재의 휘나 빛까지 명확히

12)대지의 조건이나 공포 구조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붕은 지각지점과 전각사이의 레벨 차이가 심한 경우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다포계는 주시포계보다 일반적으로 처마를 들어올리므로 잘 보이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데, 이것은 탈색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단청 보수된 것으로 보이는 동일 경내의 약사전 색채현황을 분석에 참고하였다.¹³⁾ <그림 9>의 약사전 색채현황으로 볼 때, 처마선, 부연부리, 이매기, 연목부리, 포벽, 평방·창방 등의 수평방향의 부재와 수직방향의 기둥 선들이 구분되어 지각된다. 이들 부재들은 색의 삼속성 가운데 특히, 색상대비에 의해서 구분된다. 사찰건축은 평방과 창방의 계풍도 화려한 금단청으로 채색하는데, 이것들은 공포계나 벽면부에 색상·명도대비 되어서 강조된다. 더구나 이들의 머리초와 계풍은 색상과 문양이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부재가 짧게 지각된다. 이러한 구조제의 착시효과는 구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그림 9> 전등사 약사전

궁궐이나 유교건축과 달리, 사찰건축의 인방은 삼청(7.4PB4.6/9.7)과 육색(9.4R5.7/8.9)으로 채색한다.¹⁴⁾ 이 배색은 창호와 인방, 인방과 기둥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기둥은 주련과 명도·채도대비($\Delta V=4.5$, $\Delta C=3$)되고, 인방과 색상대비 되어서 경계 구분은 물론, 기둥의 배흘림까지도 잘 드러난다. 벽면부에서 기둥은 창호보다 채색 면적이 좁지만, 창호색채에 대비되어서 두드러져 지각된다. 특히, 기둥의 YR계열은 팽창성과 강한 이미지의 색채이므로 견실함이 강조된다. 한편, 공포계의 G계열은 기둥의 YR계열과 색상대비 되어서 BG계열로 지각되는데, BG계열은 G계열보다 강한 후퇴색이므로 전각의 높이를 높이는 지각효과가 있어서 전각의 권위를 높인다.

사찰건축은 전각과 가까운 거리에서나 시각의 장애물이 없이 전각전체를 지각할 수 있다. 근경, 접경에서 지각되는 사찰건축의 색채는 선과 면, 그리고 주요구조체들을 구분하여 구조의 안정감을 강조하는 색채지각 효과가 있다. 접경에서는 부재의 문양이 더욱 확실하게 구분되어 화려한 색채가 잘 드러난다. 또한 기둥의 배흘림과 부재의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착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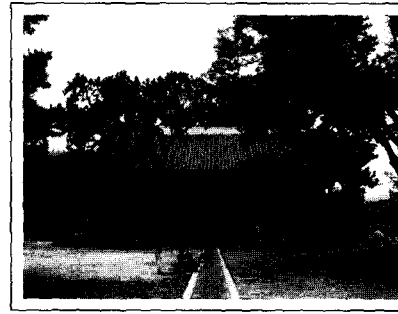
13)물론 동일 경내의 전각일지라도 위상에 따라 채색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흔적과 문양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전각으로 대응보전의 색채가 전각의 조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4)육색 대신에 석간주(2.2YR4.2/6.4)로 채색하기도 하는데, 역시 각 부재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가 있어서 구조의 견실함과 심리적 안정감이 강조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사찰건축 근경과 절경 색채지각 분석 (*는 근경만 한정)

주요지각요소	색채지각이론의 근거	시 지각 특성	조형효과
음미루*	·수목과 채도·명도 대비	·수목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 궁궐보다 대비가 약함	·지붕의 경계와 형태구분
처마선*	·수목과 공포계의 색채동화 ·기와와 공포계의 명도대비	·공포와 수목의 경계가 불분명 ·지붕과 공포의 경계구분	·지붕의 부양 이미 지효과 ·처마곡선 강조
부연부리, 이매기, 연목부리, 포벽	·인접부재와 색상·명도대비	·인접부재와 경계구분	·각 부재의 화려한 색채는 위엄장중 효과
평방·장방	·인접부재와 색상대비 ·계통과 머리초의 착시효과	·부재 길이가 짧게 지각	·구조의 시각적 안정감
기둥	·주련과 명도·채도 대비	·경계구분 ·기둥의 배출림강조	·구조의 시각적 안정감
	·인방과 색상대비 ·수목과 색상대비	·기둥의 경계구분	·강하고 견실한 수직부재 강조
공포계의 주조색과 벽면부 주조색	·주조색 간의 색상 대비	·공포계의 주조색 G는 더 강한 후퇴색 BG로 지각	·전각의 높이를 높아 보이게 하는 효과



하늘	10B9/1
수목(1)	5GY3/2
(2)	5GY4/4
양성마루	N8.0
기와	N6.75
공포(1)	10GY3/4
공포(2)	7.5YR3/3
벽/기둥(1)	7.5R2.5/2
(2)	7.5R3/6

<그림 11> 유교건축의 중경과 주요색채

양성마루(16)는 배경색인 주변수목이나 하늘과 명도·채도($\Delta V=4\sim5$, $\Delta C=2\sim4$)대비되고, 기와는 공포와 명도·채도($\Delta V=3.75\sim4.5$, $\Delta C=3\sim4$)대비되어서 양성마루와 처마선이 드러나지만, 전면의 수목에 은폐되어서 이들 선과 지붕형태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림 12>의 강화향교 대성전처럼 전면에 수목이 없는 경우, 양성마루와 처마선, 그리고 지붕의 형태가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처마의 아구토(17)는 기와($V=5\sim7$), 그리고 공포계($V=3$)와 명도 대비되어서 유교건축의 소박 단아한 처마선을 잘 드러낸다.

평방과 장방은 벽면과 기둥에 색상대비 되지만, 공포계의 색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색채동화 되어서, 공포계와 하나로 지각된다. 기둥도 벽체와 같은 색이기 때문에 동화되어 드러나지 않아서 유교건축의 소박함이 강조된다. 하지만, 기둥하부는 벽면과 기둥 상부에 채도·명도대비 되어서 그 위치가 명확히 드러난다.(18) 한편, 유교의 정전건축은 대부분 개방형(19) 평면형식이기 때문에 벽면 색채($V=2.5\sim4$)는 상부의 지붕($V=6.75$)보다 무겁게 지각되어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3.3. 유교건축

(1) 원경과 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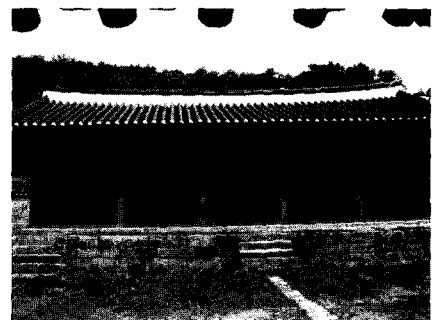
향교 또는 서원의 정전은 공간을 구획하는 담이나, 동일 축선상의 전각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원경에서는 전각의 전경을 한 눈에 보기 어렵다.(15) 일반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각 공간을 구분하는 내·외삼문에 들어서면서이며, 대략 중경이내의 거리로 제한된다. 또한, 사찰건축은 루 마루나 레벤텔차이, 탑 등이 전각을 지각하는데 장애물이었으나, 유교건축의 시각적 장애물은 수목이다. 따라서 유교건축도 사찰건축처럼 원경이나 중경에서 색채가 전각 전체조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모호하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성균관 대성전 원경과 중경의 주요 색채현황이다. 유교건축은 문양없이 부재 전체에 가칠단청으로 채색하기 때문에, 그림의 색채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경과 중경에서 지각되는 색채차이는 별로 없다.



하늘	10B9/1
수목(1)	10GY3/1
(2)	10GY3/4
공포	10GY3/3
기와	N7.5
벽/기둥(1)	5R3/1
(2)	5R4/2
바닥	5Y8/2

<그림 10> 유교건축의 원경과 주요색채

15)경계로 쌓은 높은 담 때문에 원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붕만 지각된다. 그러나 성균관 대성전과 종묘 대성전은 마당이 넓어서, 연구방법에서 설정한 원경에서도 전각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림 12> 강화향교 대성전

16)사찰건축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지붕은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사찰건축보다 작지만, 성균관 대성전과 명륜당을 비롯해 강릉향교, 강화향교, 파주향교, 종묘 등의 대성전들은 양성마루를 조성하고 있다.

17)유교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전도 막새기와의 내림새를 쓰지 않고 흰 아구토($V=8\sim9$)로 마무리한다. 강화향교, 노장서원, 파주향교, 적성향교, 예안향교, 교하향교 등에서 아구토로 마무리하고 있다.

18)벽면부 창호 색은 성균관 대성전과 종묘(벽면과 동일한 적색계열)를 제외하고 모두 GY계열이며, 기둥은 모두 YR계열이다. YR계열의 기둥은 GY계열의 창호와 색상대비 되어서 명시도가 높다.

19)'개방형'은 전면을 열주형식으로 처리하고 벽과 출입문은 그 다음 칸에 설치하는 평면형식이다. 이 평면형식은 제향시 필요로 하는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전면에 바로 벽을 설치하는 형식은 '폐쇄형'이라 한다.

<표 7> 유교건축 원경과 중경 색채지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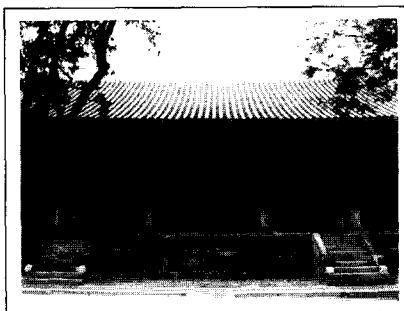
(*는 중경만 한정)

주요지각요소	색채지각이론의 근거	시 지각 특성	조형효과
양성 마루	수목에 은폐 · 수목과 채도·명도 대비 · 기와와 명도대비	· 경계가 구분되지만 전면 수목에 은폐	· 형태와 규모가 불분명
	개방형 · 배경과 채도·명도 대비	· 하늘과 지붕의 경계 구분 · 양성마루의 높은 유목성과 명시성	· 전각의 위엄·장중 효과
처마선	막새기와/수목은폐 · 기와와 공포계의 명도 대비	· 경계가 구분되지만 전면 수목에 은폐	· 형태와 규모가 불분명
	아구토 마감형 · 아구토의 유목성	· 지붕과 공포의 명확한 구분	· 유교건축의 소박한 처마선 강조
평방·창방	· 벽, 기둥과 색상대비 · 공포계에 색채동화	· 평방과 창방도 공포계로 지각	· 공포의 단순성 강조
기둥	· 기둥하부의 흰색은 인접색과 채도·명도 대비 · 명시성, 유목성 · 인접색에 색채동화	· 기둥상부는 배경색에 동화되어 눈에 띄지 않지만, 하부는 유목성이 높음	· 기둥의 위치가 드러남
벽면부	· 색채의 중량감	· 개방형 평면은 벽의 입면을 어둡게 함	· 조형의 시각적 안정감

유교건축은 시각적 장애물로 인해서 원경과 중경에서 전각 전체를 지각하기 어렵다. 또한 가칠단청으로 채색하기 때문에 지각위치별 색채의 차이도 거의 없다. 그러나 전면에 수목이 없는 경우, 유교건축의 소박한 선과 형태가 잘 나타난다. 그리고 개방형 평면으로 인하여 전각의 색채는 입면의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원경, 중경의 색채가 전각의 조형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 근경과 접경


<그림 13>과 <그림 14>는 성균관 대성전 근경과 접경의 주요 색채현황이다. 유교건축은 문양 없이 부채 전체에 가칠단청으로 채색하기 때문에 근경에서 접경으로 다가가도, 지각되는 색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근경에서 일부 시야이지만 양성마루는 하늘(2.5PB6/8)과 채도대비되고, 기와와 명도대비 되어서 지붕의 경계를 구분하며, 전각의 위엄 장중한 효과를 높인다.

	하늘	10B9/1
	양성마루	N8.75
	기와	N7.0
	공포(1)	2.5G2.5/2
	(2)	2.5Y7/6
	(3)	2.5G4/3
	벽/기둥(1)	5R3/1
	(2)	5R3/2
	기둥하부	N9.0

<그림 13> 유교건축의 근경과 색채현황

가칠단청으로 채색된 부연부리, 연목부리, 포벽, 평방, 창방 등은 인접부채와 색상 또는 명도대비되어 각 부채들이 구분되지만,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의 단순성이 강조된다. 기둥의 상부는 벽면과 명도대비되고, 하부는 상부와 채도·명도(ΔV=6, ΔC=2)대비되어서 기둥의 형태와 위치가 드러

난다. 또한 공포계의 뇌록은 벽면의 석간주에 색상대비 되어서 좀더 강한 후퇴색인 G계열로 지각되어서 전각의 장엄함과 권위를 더한다.

	공포(1)	10GY7/3
	(2)	10GY5/3
	(3)	5Y8/8
	현판	N9.25
	현판글씨	N2.75
	벽/기둥(1)	5RP4/1.5
	(2)	10RP5/4
	(3)	10RP4/4
	기둥하부	N9.25

<그림 14> 유교건축의 접경과 색채현황

유교건축은 부채전체를 가칠단청으로 채색하기 때문에 지각 위치가 변하여도 색채의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근경과 접경에서도 색채가 전각의 조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주요 부채들은 서로 색채대비 되어서 구분되는데, 이때 전각의 단순 소박성이 강조된다. 근경과 접경의 색채가 전각조형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유교건축 근경/접경 색채지각 분석

(*는 근경만 한정)

주요지각요소	색채지각이론의 근거	시 지각 특성	조형효과
양성마루*	· 하늘과 채도대비 · 기와와 명도대비	· 하늘과 지붕의 경계구분 · 양성마루의 높은 유목성과 명시성	· 시각의 상승적 이미지로 전각의 위엄·장중 효과
처마선, 지붕면	· 기와와 공포계의 명도대비 · 아구토의 유목성	· 지붕과 공포의 명확한 구분	· 소박한 처마선 강조
공포계(부연부리, 연목부리, 공포, 포벽)	· 인접부채 또는 인접면 간의 대비	· 부채 또는 면의 구분	· 오히려 공포의 단순성 강조
평방·창방	색채동화		
기둥	상부	· 벽면과 명도대비	· 기둥의 위치와 형태가 드러남
	하부	· 기둥상부와 명도대비	
벽면부	· 색의 진출성	· 상록하단(上綠下丹)의 배색	· 전각의 높이가 높게 지각되어서 권위 상승효과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전통건축 가운데 궁궐, 사찰, 유교건축의 정전 정면에서 지각되는 색채가 전각의 조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각 용도별로 대표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물로 다가가며 지각위치를 4지점으로 분류하여 촬영하였다. 지각위치별 주요 색채를 측색하여 색채지각이론에 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전건축의 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전각과의 거리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별 지형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궁궐건축은 원경과 중경, 사찰건축은 중경과 접경사이, 유

교건축은 중경에서 전각 전체입면을 지각할 수 있다. 전각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지붕은 입면의 반을 차지하는 면적이고, 이때 회색 기와는 시각적으로 무거운 색이다. 하지만 지붕이 경사져있기 때문에 기와는 반사되어서 무게가 경감된 중·고명도로 지각된다. 한편, 지붕의 마루와 처마선은 하늘, 수목, 공포계 등의 배경색과 대비되고, 공포계는 이들 색에 동화되어서 지붕은 부양하는 형태로 지각되므로 그 무게를 시각적으로 덜어준다. 또한 기둥은 창호, 수목, 공포계와 색상 대비되어서 명시도가 높으며, 적색계열이므로 굵고 강하게 보여서 수직축부재의 건실함이 강조된다. 즉, 전각 전체를 지각하는 지점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색채는 지붕 무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둥의 건실함을 강조한다. 이 색채지각 효과는 전통건축의 시각적 안정감과 균형잡힌 조형미를 드러낸다.

둘째, 근경과 접경에서 지각되는 전통건축의 색채는 인접 색간에 서로 대비되어서 부재는 물론, 복잡한 문양까지도 구분한다. 특히 기둥과 창방, 평방 등 주요 구조재의 유목성과 명시도가 높다. 궁궐과 사찰건축의 창방과 평방은 머리초와 계풍이 색상대비 되어서 부재의 길이가 짧게 지각되며, 사찰건축에서는 기둥의 배흘림까지도 지각되어서 구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색채지각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사례들은 상록하단(上綠下丹) 배색이미지를 보이는데, 이것은 높이를 높아보이게 하는 지각효과가 있어서 전각의 권위를 높인다. 한편, 접경에서는 공포, 창방 그리고 평방의 휘와 빛까지도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들의 배색은 사찰건축의 화려함, 궁궐건축의 권위와 위엄, 유교건축의 소박한 이미지를 잘 드러낸다. 즉, 근경, 접경에서 전통건축의 색채는 주요 구조재의 건실함을 강조하는 착시적 색채지각 특성과 전각의 권위, 화려함, 소박함 등 건축물마다 갖고 있는 내면적 조형언어를 표현한다.

셋째, 용도별 입지조건과 색채의 차이는 전각의 조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시각의 장애물이 없이 모든 용도의 전각들을 원경에서 볼 수 있다면, 색채가 조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궁궐건축은 원경에서부터 높은 전각 전체를 지각할 수 있고, 양성마루를 통하여 전각의 위엄 장중함이 강조된다. 한편, 사찰과 유교건축은 시각 장애물로 인해서 전각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서 원경에서 색채가 조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모호하다. 사찰과 유교건축은 중경 내지는 근경에서 전각전체의 모습을 지각할 수 있는데, 이때 사찰건축의 색채는 화려함이, 유교건축의 색채는 소박, 단순, 절제의 이미지가 부각된다. 즉, 한국 전통 건축의 색채는 지형의 차이나 인위적인 공간의 구분에 의해서 시각을 차단하거나 오픈하면서 전각의 조형언어를 표현하는 주요 인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각위차별 측색결과를 색채지각 이론이라는 객관적 근거로 분석하였지만, 조형과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다소 주관적 관점이 포함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아울러 모니터를 통해 측색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바, 향후 조형이론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확한 측색법으로 객관적 해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4
2. 임석재,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2000
3. 柳宗悅, 이길진 옮김, 조선과 그 예술, 신구, 1998
4. カラープランニングセンター, 장준호 역, 환경색채 디자인, 국제출판사, 1987
5. 장기인·한석성, 한국건축대계 III, 단청, 보성각, 1997
6. 박은주 편저,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96
7. 정유나,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건축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8. 박효철, 한국 전통건축의 배색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1

<접수 : 2004. 10. 29>